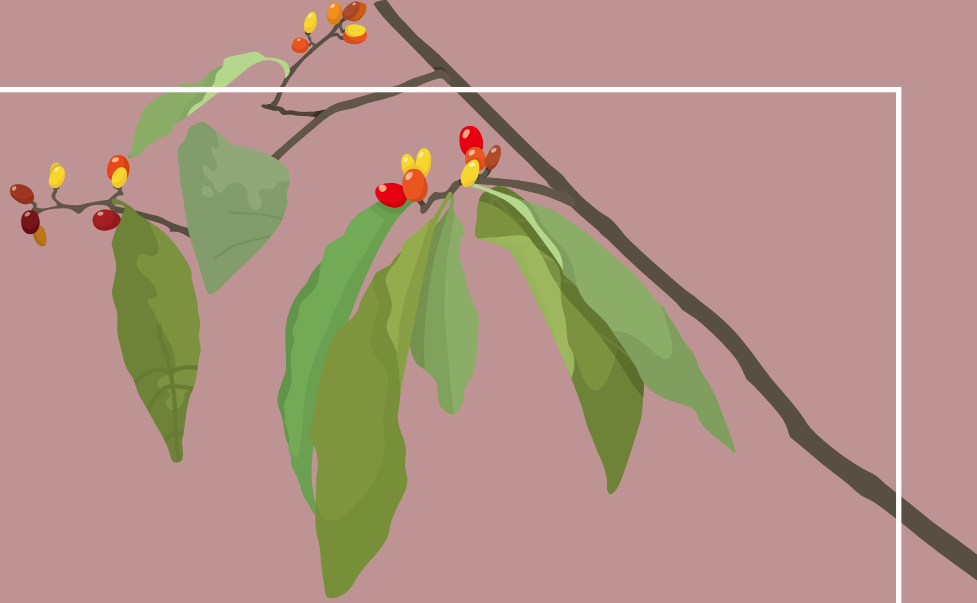


| 문화유산방문학교 |
| 꿈이은 문화유산 |



나무가 문화재라고요?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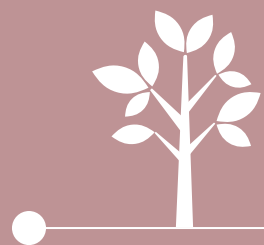


충청북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나무가 문화재라고요?



단순히 형태가 남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물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천연기념물로 말이죠. 천연기념물 중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는 바로 미선나무와 망개나무입니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나무로 독특한 모양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개나무는 주로 충청북도 일대에서 볼 수 있는 희귀종으로 독특한 회색빛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번식이 매우 어려운 나무라서 그 가치와 희귀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두 나무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연현상 부채 꽃
지형 북한 영동
식물 보호 생활 기 대성산
광물 천연기념물 멸종
서식지 망개떡 고유성 생활양식 동물 459종
자생지 동굴 괴산 이창복
지질 아름다움 희귀성 특허 땃감
산기슭 기억 미선나무
망개나무 자연물 자연 문화재
아들 야생 유일 지리 화석 욕심
심미성 번식지 불안 하트열매 문화
도래지 보호 축제 충청북도 청와대
희귀수종 암석 조선육도목 관상가치

I

자연 속의 문화재, 천연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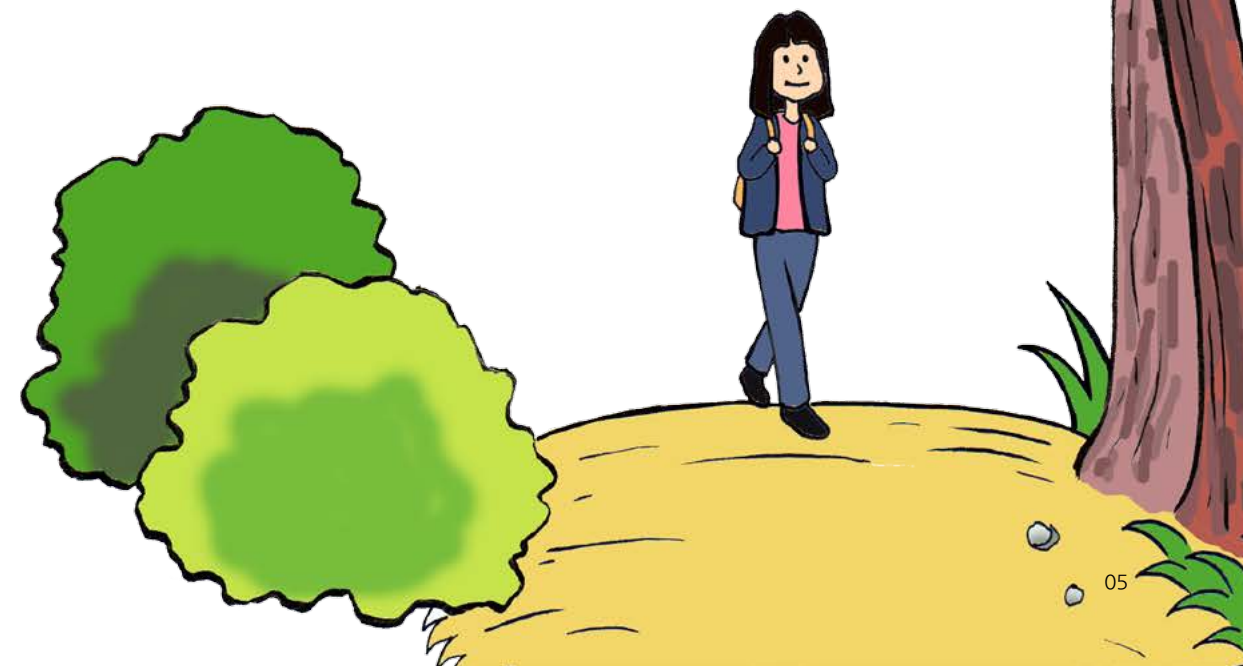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물은 우리 삶의 모든 활동에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이며, 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그 모습을 보호하여 멸종을 막고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산속으로 떠나는 상상을 한번 해 볼까요?

산의 좁다란 흙길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서 있고, 장수하늘소가 나무에 붙어 쉬고 있어요. 그 옆에는 딱따구리가 시끄럽게 집을 짓고 있네요. 조금 더 깊숙이 올라가다 보면 운 좋게 동굴을 만나 잠시 땀을 식힐 수도 있어요.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다 보니 벌써 정상이에요. 맑은 하늘 덕에 하천 하구에 다양한 새들이 모여 사는 서식지도 볼 수 있네요.

금방 머릿속에 떠올렸던 식물, 동물, 동굴, 그리고 서식지 모두 우리의 문화재*, 그중에서도 '천연기념물'에 속한답니다. 아니, 자연물이 문화재라니요? 문화재는 한 나라 혹은 어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적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지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어요.



* 고유성은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고, 희귀성은 드물기 때문에 매우 귀한 성질을 말해요. 심미성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뜻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역사나 문화와는 상관없이 보이는 자연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특정 지역에서 발견되는 자연물은 고유성, 희귀성, 심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물은 우리의 주거 생활 및 음식문화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신앙과 민속 문화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집이나 옷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생활양식과 영감은 삶의 모든 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은 우리의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이며, 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그 모습을 보호하여 멸종을 막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만들어진 자연물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만드는 자양분이었다니, 어쩐지 주변의 나무와 생물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다시 말해 천연기념물이란 문화재 중에서 ‘기념물’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 자연 가운데 학술적·자연사적·지리학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희귀한 동물이나 고유한 식물, 그 외 아름다운 자연 현상들을 특별히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지요. 천연기념물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동굴, 암석, 화석 포함), 천연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금강의 어름치 (천연기념물 제238호)



▲ 보은 속리 정이품송 (천연기념물 제103호)



▲ 단양 고수동굴 (천연기념물 제256호)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20호)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은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부터 제554호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까지 총 459종*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충청북도에는 총 23종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어요. 충청북도는 산악지역이 많아 그중 나무가 18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굴 3종, 동물 2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 괴산, 영동, 보은, 제천, 옥천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천연기념물 ‘미선나무 자생지’와 ‘망개나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이 나무는 어떻게 해서 천연기념물이 되었을까요?

* 천연기념물 지정번호는 554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나, 훼손·멸종 등으로 인한 지정해제된 것이 있어 지정번호와 지정 건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1호)



▲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천연기념물 제554호)

II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미선나무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그 열매가 뜨거운 여름날, 조선시대 임금님 곁에서 누군가가 부치는 부채 모양과 같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 나무에 꼬리 미^尾와 부채 선^扇을 붙여 미선나무라 불렀습니다.

하트모양 열매를 본 적 있나요?

충청북도의 괴산과 영동, 옥천의 숲속을 이리저리 구경하다 보면 가지 끝이 개나리처럼 땅으로 쳐져 있으면서, 특이하게 하트모양의 열매가 달린 나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가 오늘 살펴볼 미선나무입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그 열매가 조선시대 임금님 곁에서 누군가가 부치는 부채 모양과 같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 나무에 꼬리 미^尾와 부채 선^扇을 붙여 미선나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너무 예쁜 탓일까요? 미선나무의 이름은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바로 미선나무의 꼬리 미^尾를 아름다울 미^美로 오해하여 아름다운 부채모양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미선’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잘못 쓰이기 시작된 것이 꽤나 그럴듯하게 들려서 오늘날 기정사실화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기억해서 미선나무의 오해를 풀어주도록 합시다.

미선나무는 개나리와 비슷하지만 달콤한 향이 짙게 배인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선나무는 세계에서 1속^屬 1종^種 밖에 없어 아주 귀중한 나무입니다.



▲ 미선나무 꽃



▲ 미선나무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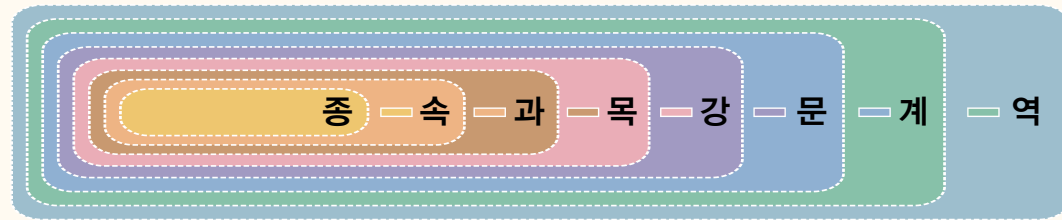




조금 더 알아보까요?

생물의 분류

비슷한 특징을 지닌 종을 묶어 속, 유사한 속을 묶어 과로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가장 상위 단계이며 큰 범주인 역에 이르게 됩니다.



즉 개나리와 같은 과인 물푸레나뭇과 식물 중에 미선나무 속^屬에 속하는 나무는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미선나무 하나뿐이기 때문에 한국의 특산 식물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선나무를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47호),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220호), 괴산 읍지리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221호),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64호)과 전라북도 지역의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70호) 등 미선나무 자생지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습니다.



▲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47호)



▲ 괴산 읍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2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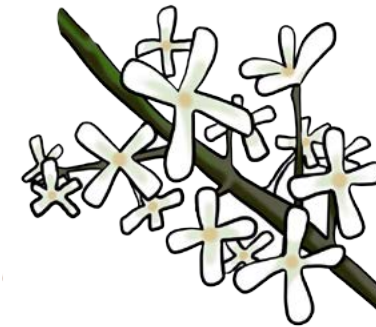


▲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364호)



▲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370호)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나는 희귀식물인 미선나무는 먼 친척뻘인 개나리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꽃봉오리를 만들어 겨울을 보낸 후, 다음 해 봄 4월경에 잎보다 먼저 꽃을 피웁니다. 꽃샘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강인한 나무이지요. 꽃 모양은 개나리를 닮았지만, 꽃이 조금 더 작고 하얀색이며 개나리보다 일찍 핍니다. 작은 초롱처럼 생긴 미선나무 꽃은 가장자리는 네 갈래로 벌어지고 한 자리에 적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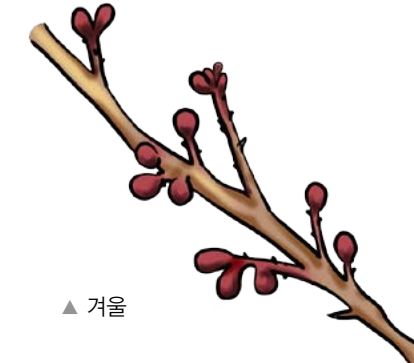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서너 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의 꽃들이 함께 모여 달립니다. 이러한 꽃 무더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층을 이루고 있지요. 그 향기 또한 일품이라고 합니다. 미선나무의 높이는 1~2m 정도이고, 위로 높게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가지를 만들며 자라납니다. 우리 무릎 아래에서 자태를 뽐내는 것이지요. 미선나무의 가지는 자줏빛을 내는데요. 그 가지에서 뻗어 나온 작은 가지는 둥글지 않고 네모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미선나무는 흙이 적고 돌이 많은 산기슭 깊은 곳, 경사진 야산에서 자라납니다. 즉, 토질이 좋고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에서 크는 식물이 아닌 것이지요. 이는 미선나무가 다른 식물과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자신만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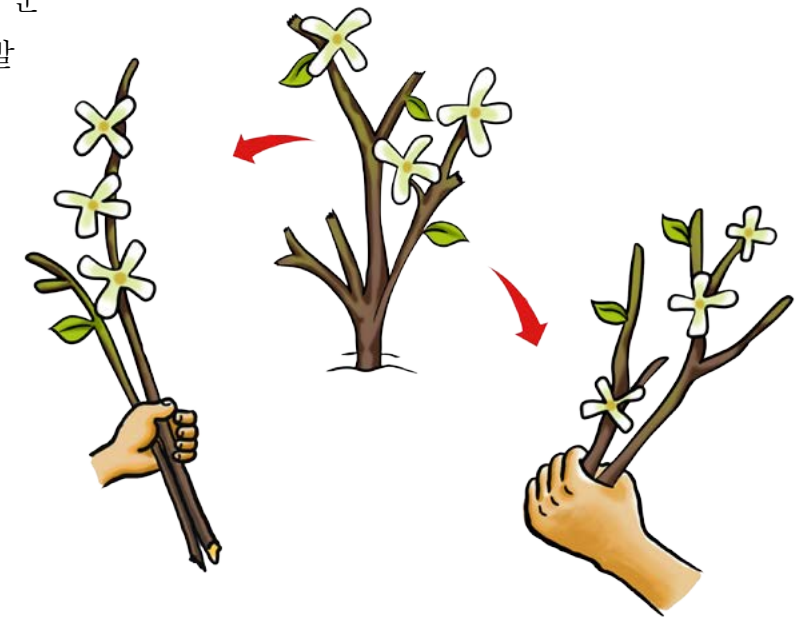
영영 사라질 뻔한 미선나무

미선나무가 학계에 처음 알려진 것은 일본인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881~1952)* 이 1919년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에서 미선나무를 처음으로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최초 발견지인 진천군의 미선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었지요. 그러나 한국 특산 식물 발견의 기쁨도 잠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미선나무가 갑자기 귀한 나무로 지정되자 사람들은 혹여나 이득이 될까하여 가지를 꺾어 가다가 나중에는 작은 나무 뿌리째 캐어 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큰 나무까지 캐어 가는 바람에 결국 1969년 진천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훼손시킨 부끄러운

사례이지요. 최근에는 또 다른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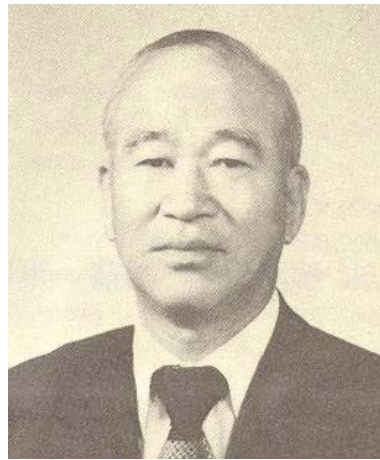
벌어졌는데요. 2002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재건산 기슭에서 발견된 미선나무 자생지 또한 보존 가치가 높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였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문화재 지정이 불발되어 미선나무를 보호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 일본의 식물학자로 동아시아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분류하는 데 일생을 바쳤으며 특히 한국 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에서 발견한 수많은 식물의 학명(學名)에 한국이 아닌 그의 이름인 'Nakai'를 넣어 아쉽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 식물분류학자·수목학자, 한국 식물분류학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고, 수목원의 발전을 주도했으며, 한국의 특산식물 종과 천연기념물의 연구·보호에 앞장선 자연보훈운동의 선구자입니다. 10여 권의 저서와 150여 편의 논문을 남겼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참나무속의 계통학적 연구> 및 <한국산 관속식물과 그 용도> 등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미선나무는 1975년 故 이창복(李昌福, 1919~2003)* 교수의 노력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창복 교수는 자연보호협회의 도움을 얻어 미선나무의 종자를 받아 싹을 틔우고, 수많은 묘목을 만들어서 근처의 초등학교와 미선나무가 없어진 자생지에 옮겨 심고 지속적인 보호와 교육 활동을 통해 사라져가던 미선나무의 불씨를 살려내었습니다.



◀ 故 이창복 교수

그 후 1980년 이후부터 특산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괴산군 주민들이 직접 나서 미선나무 보존회를 조직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등 미선나무의 자생지를 보호하고 미선나무를 널리 알려 그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괴산군 미선나무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특허청에 등록되었지요. 이로써 '괴산 미선나무'의 지리적 명칭에 대한 권리가 보호됨은 물론 괴산에서 재배된 미선나무 외에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괴산군은 앞으로 미선나무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묘목, 분재, 화장품, 식품 등 관련 산업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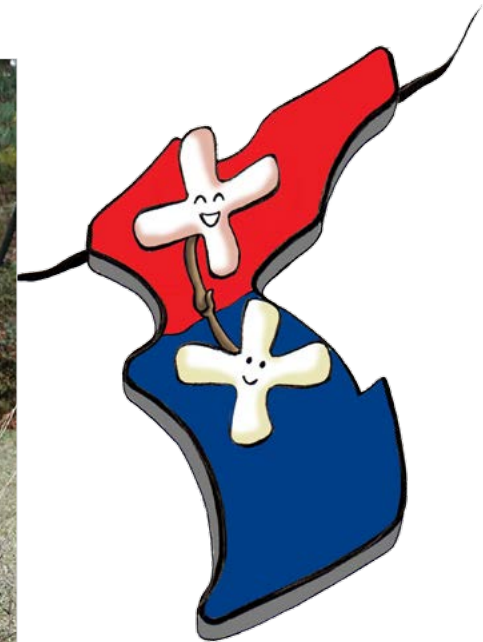
*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 가공한 특산물에 지역명을 상표 등록하여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미선나무, 북한과 남한을 잇다!

미선나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자라고 있는 식생입니다. 북한 역시 미선나무를 1980년 천연기념물 제12호(대성산 미선나무)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선나무를 조선육도목^{朝鮮六道木}이라 불렀다고 해요. 조선의 여섯 개 도에서 자랐다는 의미로, 과거에는 한반도 여러 곳에서 자랐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남한의 충청지역, 북한의 평양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희귀종 미선나무가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8년 식목일에 미선나무 두 그루가 청와대로 보내져 대통령 부부 내외가 대통령 관저 앞에 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남북평화 분위기에 맞추어 평양의 미선나무와 충청북도의 미선나무가 서로 교류하여 심어지는 날이 온다면 미선나무를 통일나무라고 부르게 될지도 몰라요.



▲ 청와대에 식재중인 미선나무



III

특정 지역에서 자라는 망개나무

깊은 산속에 흙보다 바위가 많은 곳, 한 나무가 홀로 서 있습니다. 높이가 15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이 나무에 빨간 열매가 달려 있네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나무는 충청북도에서만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은 망개나무입니다. 미선나무와 마찬가지로 1속^屬 1종^種 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나무이지요.

망개나무,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래요

깊은 산속에 흙보다 바위가 많은 곳, 한 나무가 홀로 서 있습니다. 높이가 15m는 족히 되어 보이는 이 나무에 빨간 열매가 달려 있네요. 네, 지금 보고 있는 나무는 충청북도에서만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은 망개나무입니다. 망개나무는 갈매나무과 망개나무속의 낙엽 활엽 교목^{*}입니다. 망개나무는 1935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앞에서 처음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상북도 청송군의 주왕산에서 발견되어 망개나무가 한반도에 자생한 나무라는 것이 알려졌지요. 속리산과 주왕산 외에 괴산군 화양동 및 쌍곡계곡, 문경새재, 내장산, 제천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망개나무를 발견했을 당시 한국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여겨졌으며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 특산나무로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중국·일본에서 모두 자라는 식생이었습니다.

^{*} 가을이나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봄에 새 잎이 나는 잎이 넓은 나무입니다. 교목은 지표에서 하나의 줄기가 자라며, 여기에 가지가 달립니다.



▲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천연기념물 제207호)

일찍이 중국 남부에서도 중국 망개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일본 현대 식물 분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키노 도미타로^{牧野富太郎}가 1894년에 그의 고향인 고치현^{高知県}에서 일본 망개나무를 찾았지요.

처음에는 한·중·일의 망개나무를 서로 다른 나무로 알았는데요. 최근에 같은 나무라는 것이 밝혀져 지금 우리가 쓰는 학명 (*Berchemia berchemiifolia* (Mak.) Koidz.)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동양의 세 나라에서 모두 자라다 보니 평범한 나무처럼 느껴지지만, 특정한 지역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희귀 수종으로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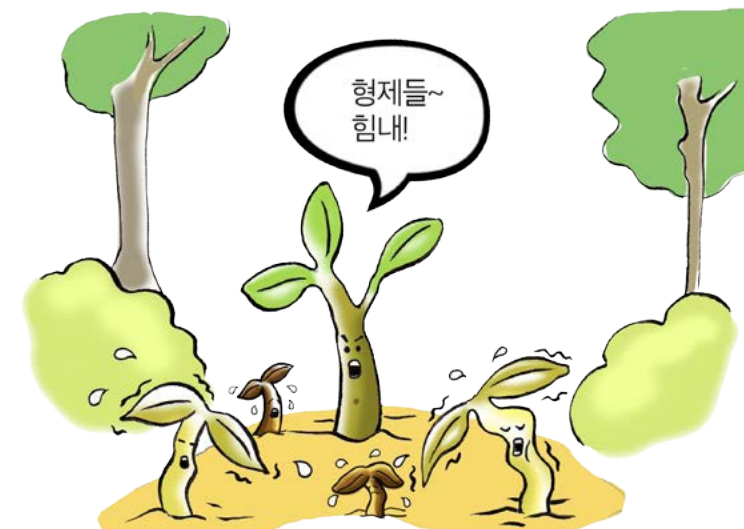


▲ 제원(제천) 송계리 망개나무 (천연기념물 제337호)

충청북도에서만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은 망개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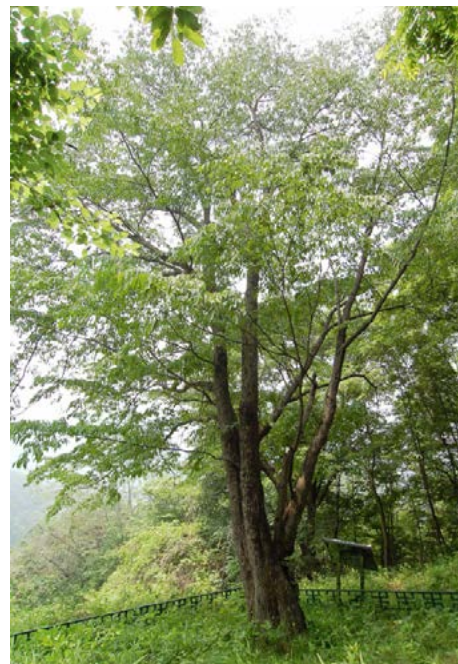
망개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 이유는 세계적인 희귀나무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나무이며 생물학적 자료로 보존가치가 높은 동시에 번식력이 약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망개나무는 주로 중부 내륙지방, 즉 충청북도 지역의 지극히 한정된 곳에서 자라납니다. 망개나무는 바위틈에서도 잘 자랄 만큼 생명력은 강한 반면, 번식력은 약해 집단으로 자라는 곳이 거의 없어요. 또한 혼자서 다른 나무와 경쟁하느라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지요. 망개나무가 스스로 살아 나가기 위해 택한 방식은 자기 꽃가루를 통한 교배인데요. 이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 흔히 말하는 ‘자식약세^{自殖弱勢}’ 현상, 즉 자기 꽃가루를 통한 교배의 반복으로 이후 종자들의 생활력이나 생존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지요. 산림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2백만 개의 씨앗 중 겨우 한 그루 정도만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하니, 망개나무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주로 충청북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희귀종이면서 번식력마저 약한 망개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선정될 요인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 자원의 증식과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와 개선업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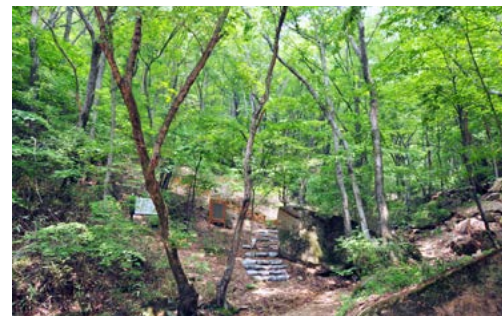


* 벌이 꿀을 빨아 오는 원천이 되는 식물
을 밀원식물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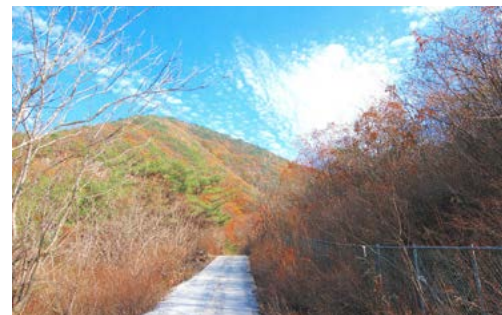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망개나무는 나무껍질이 독특하고 열매와 잎이 아름다
워 관상 가치가 높으며, 학술적 가치, 목재 이용적 가치, 밀원식물*
蜜源植物적 가치 등 그 효용 및 보존가치를 높게 평가 받아 보호의 필요
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망개나무는 한 아름 남짓에 나
이가 100년만 넘어도 천연기념물의 반열에 오를 만큼 귀한 존재라
할 수 있지요. 현재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천연기념물 제207호)와 나이가 150살로 추정되는 제원(제천) 송계
리 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337호), 군락지가 다른 망개나무 자생지
보다 넓은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266호)가 천
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및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 제원(제천) 송계리 망개나무
(천연기념물 제337호)



▲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천연기념물 제207호)



▲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266호)

망개나무는 어떻게 생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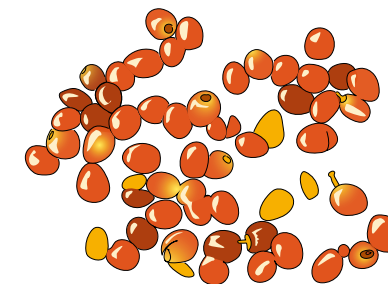
길고 곧게 선 망개나무를 자세히 바라볼까요? 15m의 키
를 가진 망개나무는 독특한 기둥 표면이 눈에 먼저 들어오
는데요. 회색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망개나무 기둥
의 표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세로로 긴 그물 모양으로 갈라
지며 위용을 뽐내지요.

잎은 어긋나며 길이 5~12cm의 긴 타원형으로, 손가락 길
이보다 약간 짧아요. 잎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
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끝은 꼬리처럼 길고 뾰족합니다. 잎
표면은 다른 넓은 잎나무보다 짙고 청아한 색을 띠며 잎맥
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꽃은 초여름인 6~7월경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같이 핍니다. 그런데 이 꽃이 동시다발적으
로 피었다 금세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오랫동안 이어
진다고 하네요. 새끼손톱 반만 한 크기의 연노랑의 꽃이 수
북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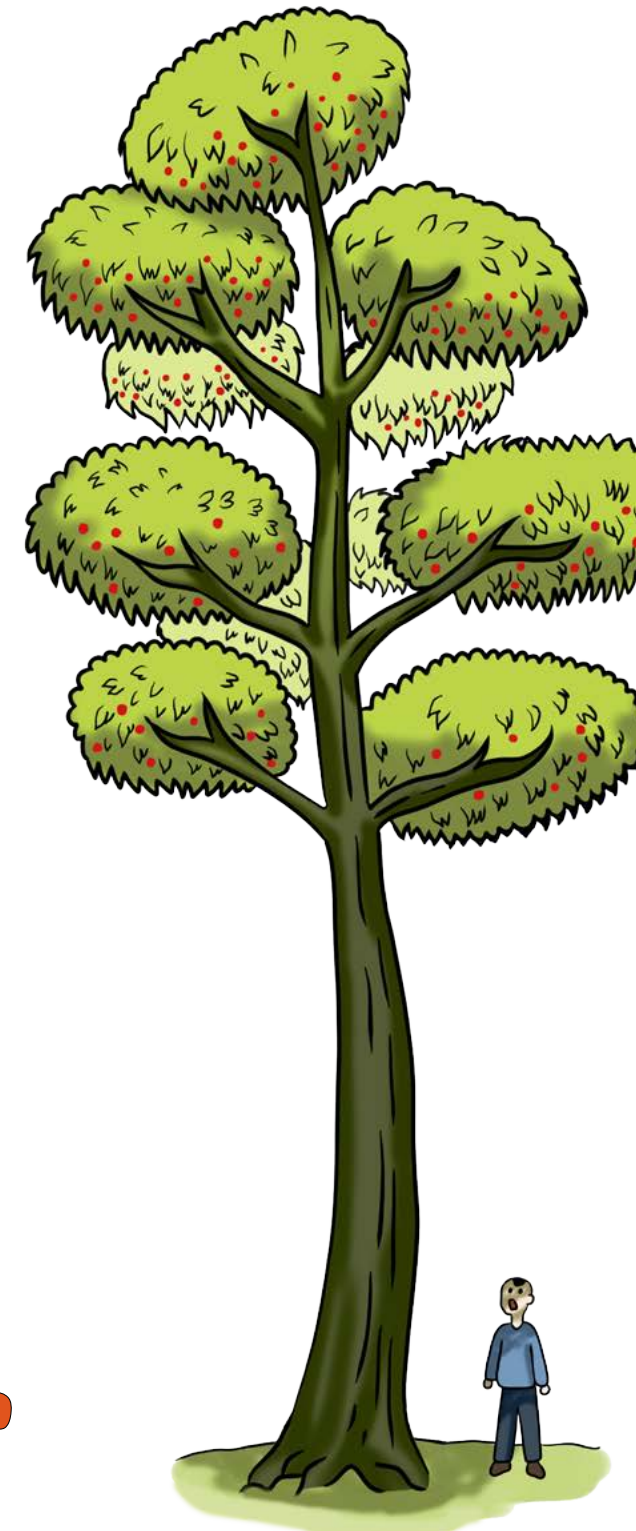
꽃이 진 후 8~9월경에는 팔알 크기의 긴 타원형의 열매
가 빨갭게 익어 망개나무의 아름다움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번 가을 뒷산을 오를 때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탐
스럽게 익은 망개나무 열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
요.



▲ 망개나무 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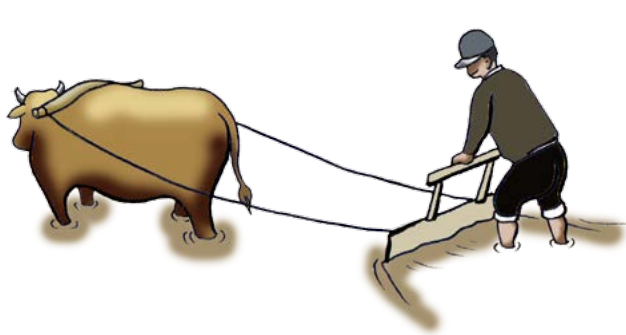
▲ 망개나무 열매



이러쿵 저러쿵, 망개나무

망개나무가 최초로 발견된 지 30년이 지난 1962년, 천연기념물 제 148호로 지정된 속리산 망개나무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고사하고 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망개나무를 가져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거 없는 속설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를 더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어른들의 귀에 속리산 법주사 인근에 있는 망개나무 껍질을 벗겨 달인 물을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미신이 들려온 것이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망개나무 껍질을 벗겨가기 시작했고, 겉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사라지자 망개나무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러한 터무니없는 미신 말고도, 우리 조상들은 망개나무를 생활을 위한 도구로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망개나무의 독특한 회색빛 껍질은 벗기다 보면 절대로 갈라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망개나무로 만든 돗자리는 명품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불에 잘 타는 특징이 있어 충북에서는 ‘뗏대싸리’, 경북에서는 ‘살배나무’라 불리며 빨감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또한 1년에 1m씩 매끈하게 자라는 특징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흙을 갈아엎고 다지는 농기구인 씨레의 살로 아주 적합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망개나무. 그러나 잘못 알려진 속설과 다양한 쓰임새 때문에 오히려 보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천연기념물 제148호 ‘속리의 망개나무’가 안타까운 이유로 죽게 되어 1962년 해제가 되자, 식물학자들이 속리산 주변을 조사하여 같은 해에 보은 속리산의 탈골암 입구에서 또 다른 망개나무를 찾았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까지 알려진 망개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에 속하며, 생육상태도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제207호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초기에는 나무의 훼손을 막고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최근에는 접근로를 개설하고 안내판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망개나무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망개’라는 명칭 때문에 망개나무의 이름을 들으면 흔히 망개떡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망개나무와 망개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망개떡은 청미래덩굴 잎으로 감싸 찌낸 찹쌀떡이며, 망개덩굴이나 망개나무라 불리기도 하는 청미래덩굴은 오늘 우리가 배운 망개나무와 다른 종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사투리로 청미래의 열매를 ‘망개’로 부르면서 생긴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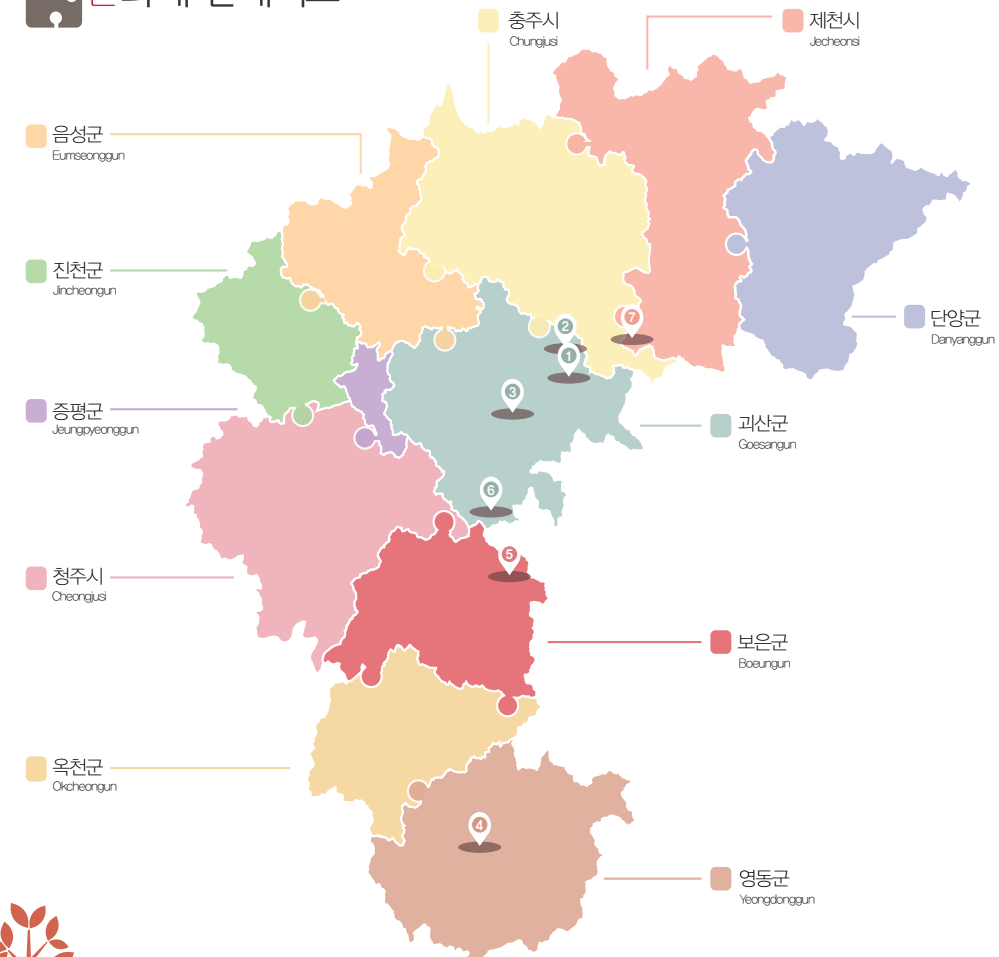
망개나무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자생지가 발견되어 보고되고 있지만, 워낙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으로 언제 또 멸종위기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쉽게 죽지 않는 끈질긴 성격을 살려 가로수로 심고 보호하자는 대안이 있기도 하지요. 우리의 고유 나무인 망개나무를 가로수로 심는다면 그 의미가 더욱 클 텐데요. 우리 지역에서만 지정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망개나무를 충청북도의 상징나무로 삼아 보는 것도 망개나무를 지키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망개나무의 보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IV

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미선나무 자
생지와 망개나무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문화재 안내지도



1. 과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 소재지 : 과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58
- 종 목 : 천연기념물 제147호

2. 과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 소재지 : 과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144-2
- 종 목 : 천연기념물 제220호

3. 과산 울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 소재지 : 과산군 칠성면 울지리 산19-1
- 종 목 : 천연기념물 제221호

4.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 소재지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4
- 종 목 : 천연기념물 제364호

5.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 소재지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 종 목 : 천연기념물 제207호

6. 과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 소재지 : 과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
- 종 목 : 천연기념물 제266호

7.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 소재지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46-1
- 종 목 : 천연기념물 제337호

[참고 자료]

- 『문화재보호법』
- 강판권,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글항아리, 2012.
- 과산군지편찬위원회, 「과산군지」, 2013.
- 나영학, 「인문학으로 본 우리 나무 이야기」, 책과 나무, 2016.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백서」, 2003.
-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 · 명승[식물]Ⅱ, 2009
- 박상진,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도감」 1 (식물), 클나무, 2006.
- 박상진,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도감」 2 (식물), 클나무, 2006.
- 연속자, 「충청의 천연기념물 그 천혜의 비상」, 도서출판 직지, 2009.
- 오찬진 · 장경수, 「계절별 나무 생태도감」, 푸른 행복, 2017.
- 윤충원, 「나무생태도감」, 지오북, 2016.
- 이유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 백가지」, (주)현암사, 2003.
- 충청북도 수목 · 산야초연구센터, 「2008년도 연구 · 사업결과보고서」, 2008.
- 충청북도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Ⅰ, 2016.
- 충청북도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Ⅱ, 2017.
- 충청북도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Ⅲ, 2018.

[참고 사이트]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국립생태원 (<http://www.nie.re.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사진 출처]

- 06 금강의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38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06 보은 속리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07 단양 고수동굴(천연기념물 제256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07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0호) _문화재청
- 07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호) _문화재청
- 07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천연기념물 제554호) _문화재청
- 09 미선나무 꽃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09 미선나무 열매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10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47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10 괴산 울지리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221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11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64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11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70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14故 이창복 교수 _연합뉴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0439377>)
- 15 청와대에 식재중인 미선나무 _청와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
- 17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207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18 제원(제천) 송계리 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337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20 제원(제천) 송계리 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337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20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207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20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266호) 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총괄** |

장준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 **기획** |

박소연(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장)

엄혜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

심경화(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

| **집필진** |

김규현(충청북도 산림과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소영(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 석사)

| **감수** |

박용목(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국립생태원 원장)

나무가 문화재라고요?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주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3

전화 043-279-5450

홈페이지 <http://www.chungbuk.re.kr>

편집·인쇄 라임커뮤니케이션

본 책자는 문화재청 · 충청북도 · 복권기금(문화재보호기금)에서 지원합니다.